

# 남원시 “광한루 600년 문화역사 체험하세요”

“북문 밖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부암이 좋사옵고, 서문 밖 나가오면 선원사도 좋사옵고, 동문 밖 나가오면 귀연한 관행묘가 천고 영웅이 어제 논 듯하옵고, 남문 밖 나가오면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이 좋사오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도련님이 말 듣고, “이 애, 니 말로 들드라도 광한루가 제일 좋을 법허구나. 광한루로 구경가게 나구 안장 지어라.”, “예이.”

-판소리 「춘향가」 中 -

## 1419년, 달나라 궁전 ‘광한루’(廣寒樓) 건립

싱그러운 여름이다. 남원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광한루원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해낸 공간으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 시대 대표적인 정원(명승 제33호)이다. 광한루원에는 경회루, 영남루,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에 들 정도로 만들 새가 뛰어난 광한루(보물 제281호)와 영주각, 방장정, 원월정, 춘향관, 춘향사당, 삼신섬, 오작교, 월매집, 연지와 잉어 등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1419년, 명제상으로 이름 높은 황희가 양

녕대군의 세자 폐위 문제와 관련해 남원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만든 정자가 바로 광한루다. 황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름은 ‘광통루’였고, 1444년 정인지가 달나라의 궁전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처럼 아름답다 하여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한루라는 이름이 붙었다.

## 2019년, ‘광한루 600년’의 해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 모두의 꿈을 담아 건립된 광한루는 어느덧 600년 전 기해년(己亥年)과 같은 해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 광한루에는 성대한 연회가 펼쳐진다.

광한루로 가기 위해서는 오작교를 건너야 한다. 오직 1년에 하루만 오작교를 통해 만남이 허용된 견우와 직녀처럼, 지난 600년간 우리 곁에 있어 준 광한루의 의미를 떠올려 남원시에서는 음력 칠월칠석(七月七夕) 전후를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으로 잡고 축하행사를



광한루 야경



신관사도 부임행사 공연



남원 시립국악단 ‘광한루의 밤 풍경’



남원 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를 준비하고 있다.

광한루 600년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행사가 절정에 달한다. 기념주간은 광한루 600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600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성대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사랑의 도시’ 남원에 걸맞게 시민들과 함께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이벤트를 열어 광한루 경내에 사랑의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매립하고, ‘600 타복행사’도 열어 8월 3일 남원시 전역에 총 600번의 북이 울려 퍼진다. 상설공연도 계속된다. 5월부터 10월까지 낮에는 흥겨운 농악 한마당과 남원시립국악단이 참여하는 전통 판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오색찬란한 조명으로 치장된 광한루 앞에서 낮보다 더욱 화려한 공연이 이어진다.

‘광한루의 밤 풍경’이라는 주제로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8시, 국악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토요일 밤 8시에는 남원시립국악단이 공연하는 국악뮤지컬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이 열린다. (8월 첫째 주는 일요일(4일) 오후 8시)

‘한여름 밤의 막걸리 축제’도 특별히 기획됐다. 요천 둔지에서 흥겨운 공연과 함께 갓 생산한 신선한 지역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보

고 즐기는 막걸리 파티가 펼쳐진다. 70~80년대풍의 추억의 막걸리 주점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한여름 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광한루원 주변 보행길도 정비해 6월부터는 광한루원 주변을 600년 역사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밤거리 풍경으로 조성했다.

## 600년을 넘어 1천년을 향해가는 광한루

1년에 한 번 광한루 앞 오작교를 통해서만 만남이 허락된 견우와 직녀의 설화가 얽힌 칠석(七夕, 양력 8월 7일)은 고대하던 만남이 이뤄지는 운명과도 같은 날이다. 광한루는 이야기와 분리할 수 없는 장소다. 600년 전 탄생한 광한루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역시 이야기와 얽힐 것이니, 칠석이 선정된 것은 광한루의 영원을 소망하는 남원사람들의 염원일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여름, 광한루는 건립 600년을 맞으며 새로운 시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광한루에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올여름, 600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남원 광한루에서 반짝이는 여름을 맞이해보자. ♡